계약과 실험, 충돌과 모순*

: 1920-30년대 연애의 장(場)

서 지 영**

차 례

1. 들어가는 글 : 연애 풍경의 이면
2. 근대 연애 담론의 지형
3. 연애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
4. 나오는 글 : '연애'라는 이데올로기 또는 환상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20-30년대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된 서구 연애담론이 조선에서 수용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식민지 근대, 연애의 역사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1920년대 영육일치의 연애와 연애지상주의의 포문을 열었던 엘렌케이의 연애론의 특징과 한국 내의 수용양상을 살피고, 엘렌케이를 계승하면서 연애를 일종의 초월적 이데올로기로 승격시킨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연애론을 분석하여 그것이 조선 내 지식인들의 연애론의 근간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추적하였다. 또한, 1930년대에 이르러 부르주아식 연애로 비판된 엘렌케이와 하쿠손의 연애론을 대체하여 프롤레타리아 연애의 모델로 등장한 콜론타이의 급진적 연애론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실의 장 속에서 연애가 구현되는 양상을 통해, 연애를 둘러싼 이상과 현실 사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50-A00001)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원

이의 간극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1920-30년대 연애 담론의 지형과 현실 속의 연애에 대한 탐색을 통해, 본고는 근대 연애론이 민족, 젠더, 계급, 자본 기제와 충돌하면서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을 제기하고, 나아가 근대 연애를 구성한 이데올로기와 판타지의 이면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 근대 연애, 엘렌케이, 구리야가와 하쿠손, 콜론타이, 젠더, 계급, 일부일처제, 판타지

1. 들어가는 글: 연애 풍경의 이면

1910년대 일본소설의 번안작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연애'라는 기호는 20세기 초 조선 사회가 체험한 모더니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1] 이러한 '연애'는 구미의 'amour', 'love'의 번역어로서, 메이지시기(1867-1912)와 다이쇼시기(1912-1926)의 일본 문화를 경유하여 조선에 유입되었다. 일본에서 전근대 시대 '色', '情', '戀', '愛' 등의 속성을 포함하면서 근대적 기호로 재탄생한 '연애(戀愛)'는 일차적으로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色'(섹슈얼리티)과 차별화되는 정신적 사랑을 개념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결혼제도와 결합시킨 점에서 전대(前代)의 사랑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서구사상의 유입, 근대국가 및 일부일처제의 성립 과정 속에서 순결하고 신성한 연애가 담론화되었던 메이지 시기와 달리, 다이쇼시기에 이르러 '개인', '자아' 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애는 섹슈얼리티를 부정하지 않는 영육일치의 사랑으로 전환되고 각종 연애 스캔들과 '심

1) '연애'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매일신보』에 연재된 일본소설의 번안작, 『쌍옥루』(1912-1913)와 『장한몽』(1913)인 것으로 논의된다.(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12쪽)

중'(心中-情死)이 난무하는 연애융성기에 이르게 된다.[2] 1910년대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유입된 연애의 성격은 이러한 메이지와 다이쇼 시기 일본의 연애와 일정 정도 그 맥을 같이 한다. 1910년대 『쌍옥루』나 『장한몽』에서 보이는 육욕을 부정하는 '고상하고' '신성한' 연애[3]는 조선에서의 문명개화를 위한 계몽 기획, 및 근대적 일부일처제의 성립과 긴밀하게 관련된다.[4] 또한, 이광수의 소설 『무정』(1917) 이후 문학과 대중문화 전반의 주된 이슈로 부상한 연애는 1920년대 조선에서도 근대적 개인의 발견(실현)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물리면서 보편적 체험으로 인식되었으며,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근대적 사랑에 대한 본격적 추구를 가져왔다.

최근 몇 년 동안 문학 및 역사 전반에서 활발하게 조명되어 온 '연애'에 관한 논의들은 20세기 초 일상의 층위에서 형성된 한국의 근대성을 해명하는 새로운 시각들을 열어놓았다.[5] 지금까지 연애를 다룬 논의들

---

2) 菅野聰美, 『消費される戀愛論- 大正知識人と性』, 東京: 青弓社, 2001, 9~95쪽.

3) 조중환, 『쌍옥루』 박진영 편, 현실문화연구, 2007, 22-28쪽; 『장한몽』 박진영 편, 현실문화연구, 2007, 46쪽.

4) 최혜실, 「개화기 신분제 붕괴와 남녀평등, 자유연애 결혼의 관련 양상」, 『현대소설연구』 9,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권보드래, 「열정의 公共性과 個人性-신소설에 나타난 '一夫一妻'와 '二妻'의 문제」, 『한국학보』 26, 일지사, 2000;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 책세상, 2001.

5) 1920-30년대 일상과 대중문화 속에서 한국의 근대성이 형성되는 지점을 포착해낸 김진송의 논의(김진송, 『서울에 땐스홀을 許하라-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1999)를 필두로 하여, 근대 연애에 대한 논의는 문학·풍속사· 여성사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김동식은 근대성을 화두로 하여 연애를 문제 삼으면서, 연애를 형성시킨 사회적 기반으로서 근대계몽 기획과 학교, 기차, 신문 등과 공공제도의 등장을 풍속사의 입장에서 조명하였다.(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회, 2001), 1920년대 초 '연애열'의 실상과 풍속을 폭넓게 고찰한 권보드래는 '연애'를 "개조론의 대중적 변종, 새로운 가치 '행복'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통로, 문화 · 예술 · 문학의 유행을 자극한 주 원천"으로 보아 당대 사회를 읽는 키워드로 제시하였다(권보드래, 앞의 책). 소설 속의 연애를 근대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논의들

은 근대적 연애가 수용되는 경로에 주목하고 당대 사회 속의 연애의 의미망을 다각적으로 탐색하여 왔으며, 문학과 신문 및 잡지 매체 속에 구현된 연애의 표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당대 사회를 설명하는 사유 틀을 양산해 왔다. 하지만, 외부(서구)에 기원하는 근대적 연애담론이 한국적 맥락 속에서 수용되고 굴절· 변형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6] 또한, 당대의 연애 담론이 현실 속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파생시킨 효과, 즉 담론의 실천적 결과물로서의 연애의 실상에 대한 논의 역시 밀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1920-30년대에, 외부에서 유입된 근대적 연애가 식민지 조선에서 재구성되는 담론 안팎의 풍경의 이면을 통시적 흐름을 따르면서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가운데, 정혜영은 근대 초기 김동인과 이광수의 소설 분석을 통해 사랑의 사회적 의미와 작가의 자의식을 추적하였으며(정혜영, 「'연애'에의 동경과 좌절-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옅은 자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1, 현대소설학회, 2004, 「근대를 향한 시선- 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회, 2000), 김미지와 김경수는 연애를 둘러싼 성과 육체의 문제, 개성론을 통해 근대 개인의 형성을 탐색한 염상섭의 소설을 다루었다.(김미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김경수, 「염상섭 초기소설과 개성론과 연애론」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2002), 또한, 서영채는 근대 소설 속의 사랑의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문학적 근대성과 문학적 주체의 상관성을 규명하였으며(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김지영 역시 근대소설 속의 연애의 표상에 주목하여, 문학 속에 배태된 근대적 사유구조를 탐색하였다(김지영, 『연애라는 표상-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명출판, 2007). 그밖에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애관과, 결혼 및 이혼관 등의 전반적 윤곽을 제시한 논의들로 신영숙의 「일제하의 신여성의 연애, 결혼문제」(『한국학보』 45, 1986)와 최혜실의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생각의 나무, 2000), 식민지 당대 성담론과 신여성들의 연애의 실상을 사회사적 시각에서 언급한 김경일의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등이 있다.

6)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 확산된 대표적 연애론으로 엘렌케이, 구리야가와 하쿠손, 콜론타이의 연애론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연애론은 위에서 제시한 기존 논의들에서도 빈번히 논의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은 드물다.

먼저, 본고는 당대의 연애론들이 일종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담론이라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근대적 젠더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에 주목한다.[7] 하지만, 이러한 연애론들은 1920-30년대 조선에서 뿌리내리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젠더 모순을 드러낼 뿐 아니라 민족(국가), 계급 등의 기제들과 충돌하고, 지배담론의 헤게모니 속에 포섭되면서 굴절되는 과정을 겪는다. 또한, 당대의 연애 담론은 남녀 간의 사랑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과 결혼(제도)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서사를 양산함으로써 근대 일부일처제의 근간이 되는 연애결혼의 원형을 제시하였지만, 현실 속에서 실험된 연애는 상호 길항하는 욕망의 충돌 속에서 애초의 담론의 지향성을 벗어난다. 본고는 이러한 균열과 괴리를 배태하고 있는 1920-30년대 연애 담론과 실제의 복합적 층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식민지 근대, 연애의 역사성을 밝히고자 한다.

2. 근대 연애 담론의 지형

2.1. 연애, 우생학, 모성의 조우

: 엘렌케이의 『연애와 결혼 *Love and Marriage*』(1911)

191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되기 시작한 스웨덴의 여성운동가 엘렌 케이(1849-1926)의 『연애와 결혼』(1911)은 1920년대 조선

7) 당시 대표적 연애론이었던 엘렌케이, 구리야가와 하쿠손, 콜론타이의 연애론 가운데, 1920년대 부르주아 계층의 자유주의적 연애론을 양산한 엘렌 케이나 1930년대 사회주의 연애관을 확산시킨 콜론타이는 모두 근대 여성 운동의 주창자들로서, 연애를 통해 '여성'의 근대적 자각과 해방을 추구하였던 인물들이다. 또한 일본 다이쇼시기(1912-1926) 하쿠손의 연애지상주의 역시 여성의 연애를 통한 자아해방을 염두에 두었던 담론이다.

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끼쳤던 연애론이다. 1917년 이광수의 소설『무정』(1917)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엘렌케이는 처음 노자영의「女性運動의 第一人者-Ellen Key-(엘렌케이)」(『개벽』, 1921. 2-3)를 통해 도입되었다. 이 글에서 엘렌케이 연애론의 핵심적 논의들, 즉 연애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연애지상주의'와 영육일치(靈肉一致)의 연애론,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의 추구로서의 연애결혼, 이상적인 연애결혼을 위한 남녀 간의 양성평등과 개인의 자아실현의 보장, 연애 없는 결혼을 거부하는 자유이혼사상, 여성의 본질이자 우월적 근거로서의 모성, 모성 교육을 통한 인종개량과 우생학적 진화론 등이 소개되었다.[8]

이러한 노자영의 글을 통해 소개된 엘렌 케이는 영육일치의 연애지상주의자, 근대부인운동의 선각자, 모성주의자, 우생학적 사회개량가 등의 다양한 얼굴을 가진다. 따라서 엘렌케이의 연애론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엘렌케이의 연애론은 수용층의 계급(계층), 성별, 성향,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함의를 가지며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10년대에 이미 엘렌 케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광수의 경우,「혼인에 대한 관견」(1917)이란 글에서 그는 혼인의 목적이 "생식과 행복을 구함"에 있고, 생식의 이상은 "개체의 번영"과 "종족의 번영"이며, 나아가 "일민족이나 전세계 인류의 발달"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혼인은 '합리성'('合法', '合倫理', '合事情')에 기반한 근대적 의미의 계약으로 자리하며, 그 계약의 조건으로 건강, 정신력(유전적 혈통), 생리상으로나 심리상 충분한 발육, 경제적 능력, 상호간의 연애를 들었다.[9] 여기서 개인과 사회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점, 혼

8)『개벽』, 1921.3, 48~52쪽.

9)『학지광』12, 1917.4, 53~55쪽.

인의 근본 조건으로 연애를 배치하는 점, 교육받은 '중류 이상 계급'을 표준으로 하는 점, 혼인을 보다 나은 자손 생산과 종족, 민족 번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 등은 부르주아 연애결혼의 모형을 정립한 엘렌 케이의 시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10]

그런데, 엘렌 케이가 19세기 말 우생학적 진화론을 수용한 페미니스트의 전형이었다는 점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녀가 취하고 있는 우생학적 진화론과 모성주의는 19세기 유럽 근대국가 성립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일부일처 가족제도 형성의 사상적 근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애와 결혼』의 <서문>에서 성과학자이자 영국 <우생교육협회>(1907년) 회원이었던 엘리스 하브록(Ellis Havelock)이 "그녀는 어떻게 사람들이 양립불가능하다고 보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우생학과 연애- 종족에 대한 사회적 주장과 사랑에 관한 개인적 주장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듯이, 엘렌케이는 연애를 통해 개인의 사랑과 사회의 번영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생학적 진화론과 제휴하였다.[11] 그런데, 엘렌케이가 구축한 연애, 우생학, 모성의

---

10) 엘렌케이의 한국적 수용양상 및 이광수와 엘렌케이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구인모의 논문(「<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한국근대문학과 연애론」, 『비교문학』 28, 한국비교문학회, 2002;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케이」,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회, 2004) 참조.

11) 염운옥의 논의에 의하면, 19세기 유럽, 인구가 국력을 의미하는 근대국가 체제 속에서 인종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과 페미니스트들의 결탁은 이중적 관계에 있었다. 우생학은 논리 구조상 적자의 생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모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진화론과 우생학이 주장하는 성 선택의 논리는 여성의 역할을 긍정하는 듯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여성의 몸을 건강한 차세대의 생산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으로 페미니스트는 우생학을 수용함으로써 모성에 특권적 신성함을 부여하고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여 양성평등을 실현시키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는데, 모성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과 관습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가부장적

조화는 원천적으로 '여성해방'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틀 속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엘렌 케이는 "일부일처제는 생명(vitality)과 국가의 문화에 필수불가결한 성적 삶의 형태"라고 주장하였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키는 목표가 전제로 깔려 있었다.[12] 실제로 엘렌케이의 연애 진화론, 즉 "본능(instinct)에서 열정(passion)으로, 열정에서 사랑(love)으로"의 전이는 여성의 위대한 감각에 의해 주도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의 '에로틱한 합일(unity)'의 체험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고 하여 사랑 속에서의 여성 섹슈얼리티의 해방을 긍정하였다.(Ellen Key, 46) 또한, 새로운 사랑의 형식을 통해 '감각과 영혼의 합일', '욕망과 의무의 합일', '자기주장과 자기희생의 합일', '개인과 종족, 현재적 순간과 미래의 합일'을 추구했던 엘렌 케이의 논의는 여성의 삶을 고통 속에 놓이게 했던 결혼의 역사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Ellen Key, 93-105) 하지만, 이광수의 혼인론은 이러한 엘렌케이의 연애지상주의적 요소와 페미니즘적 전망은 약화시킨 채, 연애를 우생학에 기반 한 민족개량 및 일부일처제 담론 속에 포섭시켰다는 면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엘렌케이의 연애론은 이광수의 예에서와 같이 1910-1920년대 초기 조선의 일부일처제 담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녀의 영육일치 연애론은 1920년대 지식인층 일반에 연애지상주의를 전파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결혼에 요하는 삼대조건」(『신여성』1925. 6)이라는 글에서 주요섭이 엘렌케이의 저서 『연애와 결혼』을 직접 언급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염운옥, 「영국 우생학 운동과 모성주의-1907년에서 1930년대까지 '우생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84, 서양사학회, 2005, 105쪽)

12) Ellen Key, *Love and Marriage*, Trans. by Arthur G. Chater, New York: G. P. Putnam's Sons, 1911, pp.7~10.

하면서 정식 결혼의 여부에 상관없이 “두 남녀 사이에 영육이 일치하는 참된 연애가 있고 또 그 연애가 계속 된다면 그 결혼은 항상 참된 결혼이요 신성한 것이외다”라고 하여 결혼제도에 구속되지 않는 연애의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진적 시각은 1920년대 연애론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여성해방 사상에 기반 한 엘렌케이의 연애론이 보다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친 대상은 1920년대 전후 신여성들이었다. 신여성들의 엘렌케이 수용은 초기에 히라츠카 라이초우가 중심이 되었던 일본 부인운동의 영향권 속에서 이루어졌다. 김원주를 포함하여 일본의 『청탑(靑鞜)』(1911) 페미니즘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조선의 신여성들은 엘렌케이의 여성해방적 연애를 실험하면서 전통적 젠더규범을 유지했던 당대 사회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신여성들은 엘렌케이의 연애론 중 ‘연애지상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근대적 자각과 정조 해방, 자유이혼을 주창하는 쪽에 치중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페미니스트 라이초우가 여성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엘렌케이의 우생학적 모성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생학 및 일본 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공모하는 양상과는 차이를 보인다.[13]

한편, 엘렌 케이의 연애론은 1920년대 중반 이후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 가족담론과 모성주의로 귀착되는 양상을 현저하게 드러낸다. 七寶山人의 「偉人의 戀愛觀- 에렌케이의 戀愛觀」(『신여성』, 1926. 1)에서는 엘렌케이의 연애가 사회개조

13) 1918년의 모성보호논쟁을 일으킴으로써 모성주의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 히라츠카는 모성의 권리와 사회적, 국가적 보호를 정치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시 중에 ‘모성’을 통한 여성의 ‘국가에의 공헌’은 당연히 ‘우량한 자손’과 ‘불량한 씨’의 도태를 포함하다는 우생학적 발언을 하게 된다. 이는 엘렌 케이 식의 서구 모성주의 페미니즘이 일본에서 황국 사관과 연계된 역사적 지점을 보여준다.(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역, 박종철출판사, 2000, 31~44쪽)

의 적절한 도구로 기능하며, 연애를 기반으로 한 결혼이 궁극적으로 일부일처제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外觀生의 「여권운동의 어머니-엘렌케이 여사에 대하여」(『신여성』, 1926. 6)에서는 엘렌케이의 모성주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남녀의 결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엇던 딴 물건 자손 때문에 봉사함으로 긍정할 수 잇는 것이다."(37쪽)라는 논의로 수렴하고 있다. 『동아일보』(1927. 4. 23)에는 「모친과 아동보호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엘렌케이의 모성주의와 아동교육 사상이 소개된다. 나아가 1940년대 채정근의 「근대여류위인열전-생명의 사도 엘렌케이」(『여성』, 1940. 9)에서는 결혼이 전보다 우량한 생명을 양산하여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우생학적 진화 논리와 더불어 그의 연애론을 '여성은 어머니일 때 비로소 귀한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단순한 연애지상주의가 아닌 '이세본위주의', '모성창앙주의'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1920년대 초기 신여성들에 의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엘렌케이의 모성론이 1940년대 여성담론으로 다시 채택되는 지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엘렌 케이의 모성론은 1930년대 후반 이후 남성 지식인들의 식민담론 속에서 여성을 새롭게 호출하면서 이들을 다가올 전시 동원체제하에서 국가와 전쟁수행을 위한 이세의 양육이라는 모성애의 논리에 포섭시켰던 역사적 정황의 산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엘렌케이 연애론은 합일되기 힘든 대립항들, 즉 에로스와 연애, 개인과 사회, 젠더와 국가의 욕망을 조화롭게 배치한 담론이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들은 상호 충돌의 국면을 드러내었고, 위계화되거나 한 쪽을 배제하는 권력 구도 속에 놓이게 된다. 식민지 조선에서 엘렌케이의 영육일치의 연애와 연애지상주의는 남녀 지식인들의 전반에게 영향을 끼쳤고, 일부 여성들에게 여성해방의 도구로서 인식됨으로써 가부장제의 틀에 균열을 가하는 급진적인 사상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신여성 비판이 거세지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엘렌케이 연애론은 그 지배 축

인 젠더 의식과 연애지상주의가 약화된 채 일부일처제 모성 담론 속으로 편입되는 길을 걷는다. 이러한 엘렌 케이 연애론의 전유는 당대 연애론 수용에 어떻게 젠더와 계급, 국가 담론이 긴밀하게 개입하였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2.2. '연애지상주의'의 판타지: 厨川白村의『近代の戀愛』(1922)

일본 다이쇼 시기(1912-26)는 서구에서 수입된 근대적 연애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일본 문화 전반에 확산되는 시기였다. 당시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였던 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 1880-1923)의『近代の戀愛』(東京: 改造社, 1922)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하쿠손 붐', 나아가 '연애 붐'이 일어나게 된다. 하쿠손의『近代の戀愛』는 당대 일본의 출판 시스템의 발달과 독서인구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연애의 대중화를 도모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낳게 된다.[14] 하쿠손의 연애론이 여성독자를 사로잡은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의 저작이 여성의 입장에서 연애론을 구성한 엘렌케이의 시각을 계승하면서, 연애와 결혼을 둘러싼 여성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15]

일차적으로 하쿠손의 연애론은 "Love is best"라는 유행 문구를 만들어낸 연애지상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즉 엘렌 케이에서 제기된 연애 영육일치론, 연애의 신성화와 종교화, 연애 없는 결혼의 부정 등을 계승하면서 나아가 이를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승화시키고 있다. 가령 엘

14) 일본에서 구리야가와 하쿠손의『近代の戀愛』이 출판되고 대중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다룬 글로서 이승신,「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근대의 연애관』수용」(『일본학보』69, 한국일본학회, 2006)을 참조하였다.

15) 일본 내에서 하쿠손의 연애론이 여성해방을 논하는 '부인론'의 계보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승신, 앞의 논문, 379쪽 참조)

렌 케이가 연애 및 일부일처제의 영속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유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하쿠손은 “인간을 불사르는 것과 같은 정열과 감격과 동경과 욕망의 백열화한 결정(結晶)을 보여주는 연애에는 유구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廚川白村, 4쪽)고 하여 연애를 신성시하고 그것의 영원성을 주장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간의 연애의 영원불멸성을 주장하는 하쿠손은 연애찬미자일 뿐 아니라, 엘렌케이식의 연애지상주의에 보편적, 절대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메이지 시대 수입된 관념으로서의 근대적 연애를 일본 문화 속에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쿠손은 또한 “생식작용과 같은 것은, 단순히 양성관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연애는 즉 성을 달리 하는 두 개체의 결합에 있어서 상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충실히 완성하는 양성의 교향악”(廚川白村, 16)이라 하여, 19세기 이후 서구 개인주의와 근대부인의 자각을 전제로 한 양성 평등적 연애관을 일본 문화 속에 확립시킨다. 그는 ‘두 사람의 혼의 결합’, ‘진실한 동심일체를 완성하는 연애’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평등한 연애를 위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입센의 노라가 집을 나간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편협된 개인주의이며, 연애를 통해 자신을 파기시키지 말고 ‘새로운 처’로서, 또 ‘새로운 어머니’(廚川白村, 31)로 다시 태어나, 모성 속에서 인생의 성적 생활의 진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일본 신여자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쿠손이 연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보편가치로서의 개인의 자각과 독립은 근대 개인주의 사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는 개인주의에 연애를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애가 근대적 개인을 확장시키고 해방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廚川白村, 40)

한편, 하쿠손의 연애 역시 개인의 주관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합함으로써 사회와 제도, 국가의 차원으로 연애의 가치가 확장된다.[16] 비록 엘렌케이와 같이 우생학적 진화론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지는 않지만, 하쿠손의 연애론 역시 연애와 신성한 가치를 결혼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근대 일부일처제와 국가주의 담론에 포섭되는 길을 열어 놓는다. 한편, 하쿠손에서 주목되는 바는 연애에 있어서의 정조론이다. 하쿠손은 남녀 간의 인격적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한 연애가 일부일처제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조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때의 정조는 결코 '동정'이나 '금욕'이 아니라, "성적 관계에 취해지는 영육의 합치 조화"(廚川白村, 219)를 의미한다고 하여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근대 금욕주의에 저항하는 다이쇼 시기 연애론의 기틀을 세운다. 이러한 하쿠손의 순결에 대한 상대적 정의는 성적 도덕의 절대적 기준으로 연애를 내세웠던 엘렌케이에서 출발하면서도, 우생학의 논리를 자유로운 성애(free love)를 막는 제어장치로 삼았던 엘렌케이와 달리, 연애에 동반되는 성적 교섭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담론으로 전개되고 수용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하지만 본고가 주목하는 바는 이상적 연애를 담론화한 하쿠손의 『近代の戀愛』가 탈역사적 판타지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그의 연애론 속에는 중심(제국)/주변(식민지)의 경계, 자아와 타자,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 없는 조화, 신분적· 성별적 차별이 없는 평등의 신화가 자리하고 있다. 현실 속의 갖가지 욕망의 충돌을 은폐시키는 연애라는 신비화된 기제는 일종의 초월적 이데올로기로 제시된다. 무엇보다 하쿠손의 연애론은 여성들의 연애와 자아 해방을 고무시키지만, 원천적으로 노라가 집을 나가 거리에서 죽게 되는 현실의 젠더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17] 여성들로 하여금 전근대 가부장제와 결별하는 계기를

16) 즉 인간의 '자기보존'과 '민족보존'은 각각 개인과 사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명활동의 二代 목표'(廚川白村, 161)라 하여 개인의 연애와 사회의 번영을 결합시킨다.

17) 菅野聰美는 하쿠손을 중심으로 한 일본 다이쇼 시기의 연애론이 기본적으로 지식

마련해주는 듯 보이는 그의 자유연애관도 근대적 결혼제도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제국 일본이 추구하는 가족이데올로기 및 통치책과 제휴했던 것으로 논의된다. 즉 연애를 통해 새로운 정조론을 주창하였지만, 이상주의적인 그의 연애론과 가족론은 모성애를 매개로 정치화되고, 국가애와 제국일본의 내셔널리즘으로 승화되면서 침략 전쟁을 책임질 '모성애 공동체' 담론으로 회수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한다.[18] 하쿠손의 연애론은 연애를 통해 근대의 환상을 부여하면서, 최종적으로 근대 국가 이데올로기와 제국의 현실 논리 속으로 포섭된 담론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연애는 가족, 민족, 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신여성의 자유연애와 연애 없이 성을 파는 매춘부를 배격하는 현모양처 가족담론과 결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연애론 형성의 흐름과도 깊이 관련된다.

연애가 없는 결혼 생활로 물질생활의 안정을 얻는 것은 일종의 노예적 매음생활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과 연애를 통해 근대적 개인을 자각하고 자아해방에 이른다는 하쿠손의 주장은 식민지 당대 조선의 연애론의 상식으로 정착한다. 고영환(高永煥)의 「戀愛의 道」(『별건곤』1929. 2.1)나 최의순(崔義順)의 「나의 戀愛와 結婚觀」(『삼천리』1929. 9. 1)은 1920년대 조선에서 엘렌케이의 연애지상주의를 심화한 하쿠손의 이상적 연애론이 일종의 '성전(聖典)'과 같이 애독되고 널리 회자되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 연애 담론의 생산 및 유통의 실질적인 주도자는 남성지식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문단』(1924),

---

인 남성들에 의해 생산됨으로써 시각의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고, 영육일치의 연애론이 현실 속의 여성의 삶과 관련될 때 허구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菅野聰美, 앞의 책, 112~161쪽)

18) 가와무라 구니미츠, 『セグシュアリテイの 近代』, 東京: 講談社, 1996, 160-164쪽, 송연옥, 「조선 신여성의 내셔널리즘과 젠더」, 『신여성-한국과 일본의 근대여성상』 문옥표 외, 청년사, 2003, 114~115쪽에서 재인용.

『문예공론』(1930) 등을 간행, 편집하면서 근대 문예 담론을 주도했던 방인근(方仁根)이 편집한 『朝鮮文士의 戀愛觀』(雪華書館, 1926)에는 당대 남성지식인들의 연애관의 흐름이 포착된다. 총 22명의 남성지식인 문사의 연애관을 담고 있는 위 책 역시 일차적으로 엘렌케이와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연애관이 당시 조선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흔적을 보여준다.[19] 그런데, 연애를 영육간의 일치, 성욕과 도덕의 조화로 보는 시각을 대부분의 남성지식인이 일견 긍정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연애론은 엘렌케이와 하쿠손 연애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영육일치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체의 측면보다 연애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주의적· 이성중심적 입장(염상섭, 김기진, 김동인, 이은상 등)을 취하거나, 연애의 궁극적 가치를 일부일처 결혼제도의 신성성과 결합시키는 보수적 경향을 보인다.[20] 이러한 논의들은 당시 엘렌케이와 하쿠손의 연애

19) 이익상이 「運命의 戀愛」라는 글에서 "'Love is best'라고까지 할 수 업스나, 인생에 연애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고적합니다."(45쪽)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바, 하쿠손의 시각은 대부분의 남성 문인들의 연애관의 기초가 되고 있다. 노자영이 「人間에 참다운 世界를 차저-나의 戀愛觀」에서 "영과 육을 조화한 곳에, 神性과 獸性을 합일한 곳에 비로소 연애가 잇는 것"(80쪽),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영속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全一的이어야한다."(81쪽)라는 정의는 하쿠손의 논의와 일치한다.

20) 가령, 연애가 없는 결혼생활을 부정하면서 "艶情은 연애의 기초, 연애는 결혼생활의 교량, 결혼생활은 인격완성의 요소"(35쪽)라고 보는 김영진의 견해, "연애라는 강한 본능적 욕구가 아니라면, 가정이란 사회적 한 단위인 단결이 업슬 것이며 그것 아니면 종족 단결의 발달인 국가가 성립되지 못할 것"(37쪽)이라고 하여 연애를 사회국가구성의 기초 단위로 파악하는 金允經의 관점, "혼인을 망각한 연애는 방탕아의 일종 유희이다. 자기 정조를 희롱하는 죄악"(55쪽)이라 한 金泳俌의 견해, 연애로 인해 "낫는(낳는) 자녀는 우생학상 所獲이 되어, 일면으로 임질, 매독 등 병균유포를 막음이 사회정책상으로 조흔결과를 이룬다"고 하여 '연애운동'을 장려하고 이를 "결혼이 전제되어야 할 신비하고 거룩한 운동"(68쪽)으로 정의하는 김동환의 견해, "일부일처제의 원칙은 이 연애로 인하야 비로소 성립되고 지속되는 것"(76쪽)이라는 김광배의 견해 등이 있다.

론이 실질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남성지식인들에 의해 일부일처제 가족, 국가 담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엘렌케이와 하쿠손이 연애의 주체로 불러들였던 여성은 1920년대 조선의 지식인 남성들의 연애론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자리하였을까? 김영진은 「戀愛結婚의 價値性」에서 "맹목적 연애에 대한 위험성은 남성보담도 여성에 만흘 것이오, 더욱히 현재 우리 조선과 가튼 상태에 잇는 여성이 그러하다."(34쪽)고 하여 당시 여성들의 자유연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대 신여성 중심의 여성들의 자유연애를 보다 직접적으로 겨냥한 논의로 염상섭의 글을 들 수 있다. 염상섭은 「감상과 기대」에서 연애를 네 부류(연애지상주의자, 이혼직접행동자, 성적 해방, 자유연애를 제창하는 이상주의자, 완고 부정론자)로 나누면서, "이혼 직접 행동자, 즉 자유이혼을 시도하는 여자를 "初戀에 도취한 여자인 경우", "그 다음에는 음부탕녀의 성질이 잇거나 성생활을 오해하는 幼婦에게 볼 수 잇는 전형"(5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물질적, 정신적 자립 없이 성적해방과 자유연애를 주창하는 자들"을 '성적 박테리아의 감염자— 무절제한 연애걸신병자'(5쪽)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신여성들의 연애를 비판한 진술들이다.[21] 염상섭은 「감상과 기대」에서 연애에 대해 "'無'에 대한 동경, '완전'을 향한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정의를 내리며, 연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술을 덧붙인다.

> 애인될 사람을 통하야, 대자연의 위대한 실재=즉 생명의 크고 적은 파동의 '리즘'을 엿보고, 그 靈性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또한 그 오묘한 활동을 체득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생명의 흘음과 포옹하고 합류되고 그에 동화되어, 그 큰 생명 속에서 자신이 헤엄을 치고, 자신의 영성 속에

21) 이러한 신여성의 연애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은 그의 소설(『除夜』, 『사랑과 죄』, 『너희는 무엇을 어덧느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서 큰 생명의 키가 울리어, 일대 심포니를 듯게 될 때, 우리는 비롯오 그 상대형상 즉 애인될 사람의 생명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이것이 건전하고 완전한 주관의 세계를 전개식힐 제, 우리는 거긔서 또한 자기의 獨異性을 발견한다."(『朝鮮文士의 戀愛觀』, 11~12쪽)

이러한 염상섭의 연애관은 "연애는 연인의 내면(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내면에서 연인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자아와 非我의 꼭 맞는 모양에 이르는 것에서, 동심일체라 할 수 있는 인격결합의 의의가 있으며 그것은 '자아의 확대이자 해방'이며, '종교적 법열'의 상태(廚川白村, 40쪽)"라는 하쿠손의 상호소통적 연애론과 달리, 자기의 '獨異性'(개성), 즉 상대편(애인)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자아의 발견으로 환원되는 염상섭의 연애의 지향성은 보편자아 이면에 남성성을 기저로 하고 있는 근대의 사유틀을 일면 드러낸다. 연애론 내부의 젠더모순은 당시 신여성들의 연애에 대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던 김동인의 연애론에서 보다 심화된다. 김동인의 「범의 꼬리와 戀愛- 연애는 늙은이의 할 일」에서 신여성들은 "왼갓 放蕩한 非道義的 淫奔"을 일삼는 "자유연애의 진의를 삐뚜루 알고 잇는, 잘 알고 잇는, 자유연애의 사도들"(『朝鮮文士의 戀愛觀』, 19쪽)이라 지칭된다.[22] 이렇게 엘렌케이와 하쿠손의 영육일치 연애론은 당대의 젠더 기제 속에서 분열을 겪는데, 이는 신여성들의 연애를 '육체적 교섭만을 추구하는 방종한 연애'로 축소, 비하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금욕주의적 연애 담론 속에서 확인된다. 1920년대 하쿠손의 연애지상주의는 식민지 조선에서 연애의 일반론으로 전파되었지만, 지식인 남성들의 젠더화된 시선 속에서 '영육일치'의 연애는 '영육분리'의 형태로 재구조화되는 아이러니를 보이

22) 이러한 신여성의 자유연애에 대한 김동인의 부정적 태도는 당시 신여성 문사 김명순을 모델로 하여 소설화한 작품, 「김연실전」(『문장』, 1939. 3)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며, 섹슈얼리티가 소거된 초월적 도덕주의나 일부일처적 사회개량주의로 수용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2.3. 연애로부터 성의 해방: 콜론타이의 『붉은사랑』(1923), 『三代의 사랑』(1925)

『朝鮮文士의 戀愛觀』(1926)에서 최학송은 "'연애는 사람의 전생명의 요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잇다. 연애지상주의가 그것이다. 과연 연애는 우리 사람의 전생명이 될 수 잇슬가? 나는 그것을 미들 수 업다. 부인한다."[23]라고 하여 1920년대 지배적인 연애 담론이었던 하쿠손의 연애론을 일정 정도 비판하고 있다. 즉, 生과 死의 모든 사실이 결국 연애를 위하여 한 것이고, 일생 동안 아무리 큰 사업을 하더라도 연애라는 로맨스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하고 편협한 논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엘렌케이와 하쿠손으로 이어지는 연애지상주의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판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계급론과 여성 해방이 결합된 콜론타이의 연애관이 부상하게 된다.

1920년 「婦人解放問題에 關하야 (十二)」(『독립신문』, 1920. 4, 13)라는 글에서 이미 소개된 적이 있는 러시아의 사회주의 여성 정치가 콜론타이(1872-1952)가 대중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30년대 그녀의 소설 『붉은 연애(赤戀)』와 『三代의 사랑』을 통해서이다.[24] 이 작품들은 가족제도의 파괴로까지 나아간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사랑을 반영하고 있

23) 최학송, 「전생명의 요구는 아니다— 나의 연애관」, 『朝鮮文士의 戀愛觀』, 雪華書館, 1926, 103쪽.

24) 『붉은 연애(赤戀)』(1923)은 러시아 혁명기를 배경으로 프롤레타리아 계층 출신의 여성 바실리사와 부르주아적 성향을 가진 사업가 블라디미르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三代의 사랑』(1925)은 소비에트 공화국 건립기에 올가 집안의 여성 三世代의 사랑과 성의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어 1920-3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다. 1930년대 초에 기존의 하쿠손의 연애론을 비판하면서 계급적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콜론타이 연애관 수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글들 가운데, 조국현은 「신연애론」(『신여성』, 1931.3)에서, 종래의 연애론은 "귀족적인 숭고한 유희", "인간생활의 모든 불평불만을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억누르는 노예를 위한 논의"라 하여 사회의식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콜론타이의 연애론을 받아들여, 계급적 이해와 연애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다. 또한, 이석훈, 「신연애론」(『신동아』, 1932.12)은 서구 개인주의 사상에 기반 한 연애지상주의인 일본의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근대 연애관'이 인텔리층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현실에서는 불합리한 결혼제도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애지상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적 연애를 청산하고 콜론타이가 주장하는 공동정신을 연애화한, 생존의 무기로서의 연애, 즉 '동지적 연애'를 실천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콜론타이의 등장은 기존의 보편의 기치를 내건 초월적 연애론의 허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계급적 시선의 등장과 맞물린다.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계급의식은 연애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물적·경제적 토대를 달리하여 전개되는 것이라 보았으며, 이는 연애를 계급에 따라 부르주아적·프롤레타리아적 연애로 양분시키게 된다.[25]

초기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지지했던 콜론타이의 연애론은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적 성도덕을 비판하는 것과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라는 두 가지 논점으로 구성된다. 金醞의 「코론타이 戀愛觀 批評」(『별건곤』 29, 1930.6)이라는 글은 계급 해방과 경제적 독립에 기반 한 여성의 성 해방을 동시적으로 추구한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赤戀)』를 우호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코론타이주의』란 엇던 것인가?」(『삼천리』, 1931.11)

25) 宇海天, 「연애의 계급성」, 『신여성』, 1931.10, 26-29쪽.

라는 글은 엘렌케이나 하쿠손의 연애론과 차별화되는 콜론타이의 급진적 성해방의 관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기한다. 이 글은 콜론타이가 '보통 알고 잇는 연애론의 상식'인 영육일치론을 부정하고 영육분리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본능의 향락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로 연애가 많은 시간과 정력이 들기 때문에 연애와 상관없이 성적본능을 기계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사회의 입장에서도 이는 유용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26] 당시 근우회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정칠성(丁七星)의 콜론타이 관련 대담기사(「<赤戀>批判, 꼬론타이의 性道德에 對하야」, 『삼천리』, 1929.9)에서 기자가 콜론타이의 "戀愛와 性慾은 別問題"이며, 사회운동을 하느라 연애하기 힘든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성욕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칠성은 "現實을 잘 본 말이외다. 性慾과 戀愛는 갈러야 하겟지요 그러고 結婚의 自由 離婚의 自由가 아조 完全하게 업는 곳에서는 그리밧게 더 엇더케 하겟슴니까?(5쪽)라고 하여, 당시 사회주의 신여성들이 콜론타이의 급진적 성의식을 일견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입센의 『인형의 집』의 노라의 해방과 『赤戀』의 왓시리샤의 解放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칠성은 노라는 '개인주의적 자각'으로서 개성에 눈을 떠 남편의 집을 뛰쳐나갔지만 거리에서 얼어죽은 '공상적 여성'인 반면, 왓시릿샤는 노라와 달리 경제적으로 해방되어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자유롭게 된 여성이라 대답한다. 당시 신여성 담론의 여성 필진이었던 김옥엽은 「청산할 연애론」(신여성』, 1931.11)에서 급진적 성해방 부분에 있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연애는 私事"이며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해방이 실현되기 전에는 이 사회에서는 참다운 연애가 실현되지 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타고 하여 연애에 대

26)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김제현 역, 『붉은 사랑』, 도서출판 공동체, 1988, 85쪽;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장지연 역, 「삼대의 사랑」, 『월요일』, 일송정, 1994, 129-130쪽.

한 고찰을 방기한다는 것은 올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10쪽)라고 하였다. 이렇게 1930년대 초반 일부 사회주의 남성이나 신여성들에게 연애로부터 성을 해방시킨 콜론타이즘은 부르주아적 연애지상주의, '노예적 연애론'을 극복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연애론의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진영의 또 다른 축에서는 콜론타이즘이 가지는 계급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었다. 『삼천리』(1931.7.1)에 진상주(陳尙珠)는 「푸로레타리아 戀愛의 高調, 戀愛에 對한 階級性」에서 연애지상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의 소산일 뿐이며, 소위 무산계급(無産階級) 연애론으로 얘기되는 콜론타이의 연애도 '小뿌루조아 연애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콜론타이즘을 공격한다. 필자는 또한 콜론타이의 『三代의 사랑』에서 주인공 올가가 추구하는 초계급적 사랑을 비판하고, 올가의 딸, '게-늬아'의 자유분방한 성의식에 대해 레닌의 "부인에게 與함"을 들어, "이런 亂婚生活은 어대까지든지 퇴폐적이며 정력의 낭비이며 혁명과는 아모 인연업는 것"이며, "이것은 연애를 통하야 점점 계급적 업무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계급적 규율을 문란하는 것"이며 '小뿌루조아적 반동적 연애관'(35-38쪽)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나아가 이 글에서 필자는 사회주의 계급이 지향해야 할 연애관을 제시한다. 즉, 부인해방, 성욕의 해결, 연애 해결 등의 문제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물질적 조건'의 해결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규율임을 천명하면서, 부르주아적 개인성을 근간으로 하는 남녀 간의 연애와 성을 동지애, 계급적 연대로 대체시킬 것을 주장한다.[27]

---

27) 1900년대 러시아 사회민주당 내 볼세비키 혁명 그룹에 속했던 콜론타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여성억압의 근원으로 보고,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동등하고 자유로운 남녀의 동지적 결합을 추구했다. 또한 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경제

이후 콜론타이의 급진적 성해방론은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담론 속에서 여성의 성적 방종으로 축소되고, '콜론타이즘'이라는 용어는 계급 해방과 여성해방의 요소가 소거된 타락의 기표로 통용된다.[28] 윤형식(尹亨植)은 「푸로레타리아 戀愛論」(『삼천리』, 1932.4)에서 부르주아 개인주의 자유사상에 근거한 연애지상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서 기원하는 콜론타이즘을 모두 '성적 방종에 흘으는 분자', '무원칙하게 성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등가화시킨다.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연애론을 대표했던 콜론타이즘은 사회주의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계급적 시각에서 철저하게 비판되고 부정되며, 사회주의 신여성들에게 계급의식을 가진 해방된 여성의 아이콘으로 자리했던 콜론타이는 힘을 잃게 된다. 그 결과, 계급해방과 연애의 열정, 연애로부터의 성의 분리, 여성해방의식 등이 동시적으로 모색되었던 콜론타이의 급진적 연애관은 이후 연애와 성, 젠더인식이 소거된 공리적, 금욕주의적 계급 담론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경향은 당대 사회주의 문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작가의 성별을 불문하고 당대 사회주의 작가들의 작품들 속에서 연애와 섹슈얼리티 문제가 계급담론의 논리 속에 흡수되는 양상과 젠더인식이 소거되는 양상은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조선의 연애담론 전반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29]

적 독립과 공동체의 양육 문제 등을 구상하는 등 사적토대로서의 가족을 넘어서 여성을 새롭게 위치시키는 급진적인 여성해방운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콜론타이즘은 당과 남성 볼세비키들의 냉소와 통제에 부딪혔으며 콜론타이는 정치적으로 실각하게 된다.(김은실, 「소비에트사회에서의 여성해방실험-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아세아여성연구』Vol 43, No 2, 숙명여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2002, 169-211쪽) 이러한 콜론타이의 급진성과 이로 인한 파국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즘의 행로와 깊은 연관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28) 안회남, 「청춘과 연애」, 『신여성』1933.5, 83쪽.

29) 이태숙은 1930년대 콜론타이즘으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 연애가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비탈」,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이기영의 「고향」 등과 같은

3. 연애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

3.1. 현실 속의 연애, 실패의 서사들

1920년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엘렌케이와 하쿠손의 연애론은 육체적 · 정신적 쾌락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애지상주의적 경향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결혼의 공리주의적 지향성을 동시적으로 추구한 이상적 담론이었고, 1930년대 콜론타이의 연애론은 '영육일치'의 연애의 신화를 넘어서 연애로부터 성을 해방시키는 급진성을 가졌지만, 이들은 현실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서사들이었다. 일차적으로 현실 속에서 실험된 연애는 이상형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미숙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연애의 모습을 띠었다. 방인근(方仁根)은 「戀愛男女備忘錄, 戀愛讀本·結婚教科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지금 流行되는 戀愛는 「작란戀愛」「드러운戀愛」「풋戀愛」이다. 가장 참된 사랑의 불꼿이 마조치는『인생의 꼿'』이라고 할만한 戀愛에는 어듸까지 嚴肅하고 熱烈하고 眞實하여야 할 터인데 거긔에 遊戱的 氣分이 조곰이라도 흐른다면 그거슨 破滅이다. 그런 戀愛는 끗끗내 不成功이다.(『별건곤』1927. 12. 20, 146쪽)

현실 속에 실현되는 연애는 참된 사랑의 불꽃으로 이루어지는 엄숙하고 열렬하며 진실한 연애가 아니라, 단순한 유희에 그치는 '작란 연애', 진실성이 없는 '드러운 연애', 미성숙한 '풋연애'에 불과하였다. 이성환(李晟煥)의 「엇더케하면 結婚을 잘 할가, 戀愛讀本·結婚教科書」(『별건곤』1927. 12. 20)에서도 당대 연애의 실상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비판

대표적 사회주의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 개인의 성애적 열정을 무화시키고 계급적 이념을 중시하는 관념적, 금욕적 서사로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태숙, 「붉은 연애와 새로운 여성」,『현대소설연구』2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159-179쪽)

하는 '남조(濫造)된 연애'(148쪽)는 이상적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자격미달의 연애이다. 필자는 인격적 연애가 중심이 되어야만 진정한 결혼, 도덕적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부일처제는 이러한 연애를 기반으로 실현되는데, 현실에서는 결혼을 위해 연애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엘렌케이가 수용된 이후, 조선에서는 연애가 없는 결혼은 매음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었으며, '완전한 연애'만이 참된 결혼과 가정생활을 성립시킨다는 믿음[30]이 확산되었다. 또한 이상적 연애, 좋은 연애란 신성해서 제 3자가 침범할 수 없고, 일생에 한번 있는 진실한 연애이며,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영속성을 가지며, 결혼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내리고 있었다.[31] 하지만, 현실 속에서 연애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이비 연애들이었으며, 그것은 일종의 '말라리아'와 같이 전염되어, '戀愛恐怖病에 붓들린 者', '戀愛걸신病患者' '도쓰가핀 愛用家', '戀愛窃竊盜常習犯'. '情死禮讚者', '『프라토닉, 러브』로 終身하는 者類'[32] 등으로 가득하다고 논의되기도 한다.

한편, 1920년대 전근대적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근대적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일환으로서 제시되었던 여성들의 연애는 현실 속에서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다음 글은 1920년대 중반의 소위 '연애'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다.

> 男子는 知識을 닥고나니 沒理解의 配偶者가 잇는 동시에, 女子는 知識을 닥고나니 尙今 處女인 同時에 同等의 知識을 가질만한 남자는 대개 旣婚이어서 相當한 配偶를 선택할 길이 막힘으로 妾으로 가거나 맘에 잇는

30) 崔義順, 「나의 戀愛와 結婚觀」, 『삼천리』, 1929.9.1, 31쪽.
31) 「戀愛憲法」, 『별건곤』, 1929.1.1.
32) 沈熏, 「戀愛와 結婚의 側面觀」, 『삼천리』, 1929.11.13, 32쪽.

> 旣婚男子를 들수성거리어 離婚하게 하거나 그럿치아니하면 無識한 男子를 擇하거나 할 수박게 업슴니다. 이것이 지식계급 남자의 이혼문제가 생기는 이유며, 또한 知識階級女子의 賣淫的 妾生活(暫時暫時돈밧고 돌림妾노릇하는)로 타락되거나 좀 똑똑하다는 여자면 離婚煽動者 노릇을 하게 되는 이유외다.(金允經, 「戀愛觀」, 『朝鮮文士의 戀愛觀』, 40쪽)

위 글은 당시 신여성들의 자유연애가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불륜 관계로 전락하거나 기혼 남자의 첩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매음적 삶을 살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1920년대 여성들의 자유연애가 부딪친 현실적 딜레마는 일차적으로 그들의 연애대상이 대부분 조혼한 신남성들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1920년대 대표적 신여성 문사였던 김원주는 「근래의 연애문제」(『동아일보』, 1921.2.24)에서 남녀가 참마음에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교제를 하였지만,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경우, 사랑이 진실하다면 상대남성의 기혼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과도기의 청년 남자들의 연애의 자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정당화한다. 이러한 김원주의 주장은 자유연애의 이상이 전근대 조혼 관습이 지배하는 현실과 부딪친 괴리감과 더불어 일부일처제를 지향했던 근대연애론이 식민지 조선에서 봉착한 자가당착적 현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보다 심화되어 드러난 신여성의 '第二婦人'(첩) 현상은 근대의 선봉에 섰던 여성이 전근대적 존재양식인 첩이 되는 모순을 보여준다.[33] 구여성과의 조혼으로 인한 '연애 없는 결혼'에 절망한 신남성들은 실제적으로 엘렌케이나 하쿠손식의 연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관습적

33) 근대자유연애와 '제이부인' 관련 논의는 신영숙,의 앞의 논문; 김윤선, 「또 다른 신여성-노처녀·제2부인·동성애자」,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22집 4호, 한국여성학회, 2006 참조.

인 가족의 틀은 유지하면서 이와 분리되어 가족 밖에서 신식 연애만을 구하거나 여학생 첩을 두는 기형적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1920년대 엘렌케이와 하쿠손의 연애지상주의에 감응을 받아 부르주아적 연애를 실행하고(나혜석, 김원주, 김명순) 조선의 '노라'로서 자유이혼을 감행하며(박인덕), '조선의 콜론타이'(허정숙)로서 급진적 성애를 추구했던 신여성들이 당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고립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1920년대 중반 이후 현실 속의 연애는 보수적이면서 한편으로 실리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음 글은 1930년대 이르러 여학생들의 연애가 사회로부터 다각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정황을 시사하고 있다.

> 연애는 결혼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연애의 자유를 용인하지 안는다. 연애는 곳 惡으로 인정하고 아들이나 딸에게 그를 엄금한다. 더욱이 딸에게 잇서서는 그가 한층 더- 심하다. 부모도 그러하거니와 학교에서도 성에 대한 강화가 업고 학생으로 하야금 연애란 말도 자유로 못하게 한다. 그냥 封建時代의 녀성을 그대로 옴기여 노흐려는 것이 현하 女學校 敎育의 기본정신이다. 그럼으로 녀학생들은 입으로는 결혼의 자유를 부르고 찬미하지만은 그 실지에 서서는 자긔가 몸소 그를 실천치 못함은 勿論이고, 남의 연애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숭보는 현상이다.[34]

위 글은 초기 신여성들을 자아발견, 여성해방의 방편의 명목으로 자유연애의 장으로 불러내었던 시기를 통과하여, 연애가 결혼의 방편으로 축소되고 오히려 연애의 자유가 억압되는 1930년대 초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 글에서는 당시 연애를 갈구하는 청년 여성들의 욕망이 궁극적으로 '장래의 행복과 영화'에 대한 동경임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연애의 종착지가 "보석반지, 문화주택, 피아노, 비단

34) 김세성, 「처녀독본- 제4과, 연애와 결혼」, 『신여성』, 1931.4, 28쪽.

옷, 비단양말, 안락의자, 비단이불, 훌륭한 의장, 자동차, 최신 유행구두, 솔, 외투, 어멈, 針母, 돈, 영화, 호기 등등"(28쪽)이었다는 비판적 지적 속에는 연애의 완성으로서의 결혼보다는 결혼을 통해 물적· 문화적 풍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여학생들의 현실적 욕망이 노골적으로 제시된다.[35] 이렇게 자아 완성과 여성해방의 전망을 대체한 부르주아적 결혼에 대한 여학생들의 환상은 연애가 초기에 관계 맺었던 자아 발견 및 여성해방의 전망을 탈각시키고 자본주의적 욕망과 결탁하는 1930년대 연애결혼의 지형을 제시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지향성은 당대 지식인 남성들의 시선 속에서 허영과 타락의 지표로 담론화되는데, 1930년대 대중 매체는 신성한 연애가 아닌 물질적 욕망과 외적 기준을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신여성의 허영심이 연애와 결합하면서 종국적으로 실패와 타락에 이르는 서사들로 가득 차게 된다.

3.2. 근대적 연애의 내파(內破)

1930년대에 이르러 연애지상주의에 기반 한 이상적 연애론이 현실 속에서 점차 퇴조하는 경향 속에서, 여성들의 경우 보다 물질적, 문화적 풍요를 추구하는 실리적인 결혼관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현실의 또 다른 축에서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유희적 연애를 즐기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스윗홈이나 신성한 결혼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 나쁜 연애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논란이 되는데, 노천명, 이선희, 최정희, 모윤숙 등의 여류문사들의 연애 관련 좌담회(「女流 文

35) 이성환과 고영환의 앞의 논문에는 당대 결혼의 조건으로 돈, 미(외모), 명예, 우연, 자발적 결혼의사가 제시된다. 여기서 결혼을 위해 가장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애가 아니라 돈, 외모와 같은 외적 조건이며, 남녀가 모두 허영적이지만, 특히 여성이 보다 더 실리적이라고 비판된다.

士의 『戀愛 問題』會議」, 『삼천리』, 1938.5.1)에서 당시 유행하던 '신연애론'이 집중 해부된다. 이 모임에서 사회자인 김동환은 "요지간 신시대의 여성들의 연애하는 과정을 바라보면 一世 滔滔 유물주의인 때이니 그도 엇절길 업겟스나 놉흔 정신생활을 동경하는 나머지에 연애의 길로 뛰여드는 것이 아니라, 한갓 「섹스」 때문에, 즉 春情을 못 이기어, 이성의 압흐로 내닷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쾌락주의적인 감각 생활을 동경하여서요?"(313쪽)라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이선희는 '근대 연애의 특징'을 첫째는 '스피-드주의'이자 '철저한 행동주의'로서, 여성들의 경우 "제 마음을 끄는 남성이 나타나면 이쪽에서 오히려 자기 표현할 기회를 만들고, 능동적이 되서 저편으로 접근하려 하며 가령 편지라도 오면 곳 답장 쓰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더욱 용감하여지고, 경성부에 가서 호적부쯤 조사하여 두기를 일수로 하고, 모다 이러하지요."(314쪽)라고 하고, 둘째의 특징으로 '쾌락주의'를 제시한다. 모윤숙 또한, "현대적 조건을 너무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가족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학생 시대의 실생활이 풍부하지 못했음을 한탄하여, 부유한 집에 시집가려 하는데, 예전에는 남성의 미모나 스타일도 보았지만, 지금은 돈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며, 이를 '「아메리까이즘」의 전성'(315쪽)이라 설명한다.[36]

'스피드주의', '쾌락주의', '물질중심주의'는 1930년대 말의 현실 속에

36) 위 좌담회에서 "시대의 호흡이 급박하고 사회 정세가 深切하니만치 연애 문제 가튼 것은 제 2차적 제 3차적 문제로 돌려지고 현실적 여러 난관에 모다들 몰두"(『삼천리』 1938. 5. 1, 320쪽)하고 있는 처지라는 기술, 金明植의 "戀愛와 時代思潮-나의 素人的 戀愛觀"(『삼천리』, 1939.6.1, 87~88쪽)에서 日本 內地에서의 時局關係로 모더니즘적 연애관이 거의 形跡을 감추었다는 지적은 일제 파시즘 체제의 정치적 정황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연애의 쾌락주의적, 물질주의적 경향이 만연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녀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유일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연애에 관한 대안 담론들이 여전히 모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 포착된 연애의 특징으로서 엘렌케이와 하쿠손이 주장한 이상적 연애결혼의 요건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37]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연애를 통한 영육일치, 자아와 타자의 이상적 합일이라는 1920년대 연애론의 공식이 무너지는 예들을 빈번히 확인할 수 있다. 안덕근의 「毛允淑·羅蕙錫씨의 戀愛觀 批判」이라는 글은 당대 두 명의 신여성 문사, 모윤숙과 나혜석의 연애관을 비판하면서, 연애에 있어 성욕의 중요성과 연애 자체가 '에고이즘'에서 출발한다는 시각을 제시한다.[38] 연애 본래의 본성을 연애의 이기성 즉 사랑하는 사람을 독점하려는 소유욕의 일면으로 보는 위 글은 양성 평등 및 연애를 통한 개인주의의 확장과 자아 해방을 보편논리로 추구했던 엘렌케이나 하쿠손의 이상주의와는 다른 유물론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드러낸다.[39] 이러한 신연애론은 강의영(姜義永)의 『現代 新社會의 戀愛觀』(京城: 永昌書館, 1937)에서 보다 심화·기술된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남녀 연애 및 결혼에 있어 성과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유물론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일부일처제가 현실 속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국가 및 교회의 결혼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 계급과 젠더의 불평등을 넘어서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연애결혼의 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바벨의 『부인론』을 언급하여 '신부인'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계급적 평등을 염원하는 등 사회주의적 전망을 드러내면서도, 필자는 연애론을 계급담론으로 수렴시키지 않고 "진정 평등한 愛의 불가능한 금일의 결혼"(46쪽)을 극복하는 현실 속의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연애담론 구성의

37) 金明植, 앞의 글, 85~86쪽.

38) 『삼천리』, 1938.5.1, 161~166쪽.

39) 베벨의 『婦人論』, 杉山平助의 『新戀愛論』, 山川菊榮의 『婦人과 社會主義』, 岡邦雄의 『文學과 科學』 등을 참조했음을 밝히는 위 글은 영육일치의 연애를 유물론적으로 재해석하는 신연애론의 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대 연애결혼의 파산의 흔적들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함대훈은 「戀愛는 熱病이다」에서 자신의 연애관의 변천을 기술하면서 엘렌케이와 하쿠손, 콜론타이를 거쳐 이어져 온 연애지상주의가 궁극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물거품과 같은 감정의 유희이며, 결혼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일종의 열병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는다.[40] 이는 바로 연애지상주의에서 출발하여 제도 속에 연애와 결혼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근대 연애담론이 당대 현실 속에서 부딪친 좌절을 인정하는 직접적 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연애에 있어서의 담론과 실제상의 간극은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양산된 이미지와 판타지들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문명 개조를 위한 대중 계몽의 기획 속에 작동된 근대적 연애는 소설과 같은 신문연재 소설이나 일반 대중소설, 대중 잡지나 신문 등의 매체, 영화, 연극 등의 형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당시 소설이나 대중매체에는 서구 문학의 여주인공이나 급진적 여성상이 여성들의 우상, 문화적 아이콘으로 등장한다. 당시 매혹과 비난의 양가적 시선을 받았던 '노라', '엘렌케이', '콜론타이' 등의 신여성 기호, 사회주의 지식인 남성들에게 동경의 여성상이었던 '와시릿샤'(콜론타이의 『붉은 연애』의 주인공)와 '로자 룩셈부르크'(이효석, 『주리야』, 『오리온과 林檎』, 조명희, 『낙동강』[1927]), 기생이나 여급과 같은 유흥공간의 여성들에게는 톨스토이의 '카츄사'와 <라보엠>의 여주인공 '미미'(여급 잡지 『女聲』) 등의 여성 아이콘들이 연애와 결합하면서 소비되었다. 염상섭이 간파한 대로 당시 조선에는 현실적으로 "련애를 할 만한 모든 조건과 조짐"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41] 근대적 연애는 이미지의 형식 속에 현

40) 『삼천리』, 1940.5.1, 122-123쪽.

41) 염상섭, 「너희는 무엇을 어덧느냐」, 『염상섭 전집』-1, 민음사, 1987, 280쪽.

실에서 해소되지 않는 욕망을 투사하였던 것이다.

또한, 담론과 현실 속에서의 근대연애결혼의 좌절로 인해 결혼제도 밖으로 밀려난 연애는 1930년대에 이르러 가족 밖의 상업적 유흥공간에서 일종의 상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시 자유연애의 실질적 주인공들은 요리점의 기생과 카페 안 여급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리점과 카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유희의 욕망을 해소하는 연애 시장의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기생들은 전근대 시대부터 지배층 남성들의 향락을 위해 동원된 여성들로서 화류계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근대 연애결혼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가족 밖의 일시적인 유희 및 연애의 대상으로 소모된다.[42] 또한, 1930년대 카페라는 공간은 서구적 기호와 취향으로 유희의 형식을 재구성하고 신여성의 외형을 한 여급들을 통해 유사-연애를 상품으로 제공한 특수한 공간이었다. 1930년대 많은 소설들은 카페여급들을 통해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불안정한 연애나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연애의 실상을 형상화하고 있다.[43] 1930년대 요리점과 카페의 연애 풍경은 1920년대 전후에 기획된 근대적 연애담론의 이상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관통하면서 굴절된 양상을 첨예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제도 속에 뿌리내리지

---

42) 서지영, 「식민지 근대 유흥풍속과 섹슈얼리티- 기생· 카페여급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4.

43) 박태원의 「길은 어둡고」(『개벽』, 1935.3), 「悲凉」(『중앙』, 1936.1), 李箱의 「지주회시」(『중앙』, 1936.6), 이효석의 「聖餐」(『여성』, 1937.4), 「계절」(『조광』, 1937.6), 「薔微 病들다」(『조광』, 1938), 유진오, 「나비」(『創作 三十二人集』, 문장, 1939), 정인택의 「動搖」,(『創作 三十二人集』, 문장, 1939), 안회남, 「에레나裸像」(『청색지』, 1938.6), 「애인」(『여성』, 1939.7-1940.3), 「번민하는 잔룩씨」(『인문평론』, 1939.10), 「탁류를 헤치고」(『인문평론』, 1940.4-5) 등의 소설들은 1930년대 카페 안의 연애 풍경과 더불어, 연애가 결혼과 분리된 채 유흥공간에서 소비되고 향유되었던 세태를 잘 보여준다. 이 작품들에 대한 해석은 서지영, 「카페, 근대 유흥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12 참조.

못한 일부일처제의 틈새를 가시화하는 역사적 지점을 제기한다.

4. 나오는 글 : '연애'라는 이데올로기 또는 환상

본 연구는 1920-30년대 서구에서 기원한 근대 연애 담론이 식민지 조선에서 재구성되고 실제 삶 속에 발현되는 과정을 탐색하면서 당대 연애가 지니는 역사성을 질문하고자 하였다. 여성해방의 전망과 더불어 양산된 1920-30년대 근대적 연애 담론은 근본적으로 계급적, 성적 상호평등의 조건 속에서 사랑과 결혼(제도)을 합치시키는 이상적인 기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실험된 연애는 담론적 이상과 현실간의 메울 수 없는 간극들을 드러낸다. 근대 연애는 부르주아적 자아이상의 실현을 모델로 하는 계급적인 한계를 지니면서 현실 속의 극심한 젠더 모순을 거쳐 공리적 담론 속에 수렴되었으며, 사회주의 계급담론과충돌하고 결혼을 둘러싼 자본주의적 욕망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애초의 지향성은 굴절되고 내파된다.

근대 연애 담론은 원천적으로 민족과 계급, 젠더적 모순을 은폐한 이상적 가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자아, 평등, 해방 등의 보편의 얼굴을 한 중립적 언어들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육체(섹슈얼리티)와 정신(영혼)의 분리와 위계를 넘어서서 조화·균형을 추구했던 근대 연애의 이상은 육(肉)을 부정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식민지적 상황의 국민국가 기획(제국, 민족, 가족 담론) 속으로 포섭된다. 또한, 외적 조건(계급성, 물적 토대)이 결혼에 보다 깊이 개입하게 되면서 1930년대 초기 '연애지상주의'가 추구했던 연애와 결혼의 조화로운 결합은 그 허구성을 드러낸다. 한편, 결혼(제도)으로부터 소외된 연애는 현실과 유리된 담론 속의 이미지나 환상의 형식으로 소비되거나, 1930년대에 이르

러 요리점· 카페와 같은 유흥공간에서 상품으로 소통되면서 일부일처제의 틈새를 가시화시키기에 이른다.

'연애지상주의'라는 새로운 틀을 시작된 근대 연애 담론은 인간 에로스의 욕망을 '보편'의 형식으로 재편하고자 하였지만, 현실을 구성하는 복합적 기제들은 사랑이라는 '초월적' 이데올로기 속에 봉합되지 못한 채 허구와 균열을 드러내었다. 1920-30년대 연애의 장은 사랑을 통한 영육의 일치, 계급적 · 젠더적 평등, 자아 완성과 해방, 현실 초월을 꿈꾸었던 근대의 판타지가 조선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어떻게 변형되고 내파되어 갔는지를 생생하게 열어 보이고 있다.

ㅁ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독립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학지광』, 『개벽』, 『신여성』, 『별건곤』, 『삼천리』, 『신동아』

2. 단행본

姜義永, 『現代 新社會의 戀愛觀』, 京城: 永昌書館, 1937.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 책세상, 2001.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동인, 『김동인전집』 4, 조선일보출판국, 1987.

김윤선, 「또 다른 신여성-노처녀·제2부인·동성애자」,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명출판, 2007.

김진송, 『서울에 땐스홀을 許하라-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1999.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송연옥, 「조선 신여성의 내셔널리즘과 젠더」, 『신여성-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문옥표 외, 청년사, 2003.

염상섭, 『염상섭 전집』 1·2·9, 민음사.

조중환, 『쌍옥루』, 박진영 편, 현실문화연구, 2007.

_____, 『장한몽』, 박진영 편, 현실문화연구, 2007.

최혜실,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2000.

張競, 임수빈 역,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김제현 역, 『붉은 사랑』, 도서출판 공동체, 1988.

_____, 장지연 역, 「삼대의 사랑」, 『월요일』, 일송정, 1994.

廚川白村, 『近代の戀愛』, 東京: 改造社, 1922.

菅野聰美, 『消費される戀愛論- 大正知識人と性』, 東京: 青弓社, 2001.

Ellen Key, *Love and Marriage*, Trans. by Arthur G. Chater, New York: G. P. Putnam's Sons, 1911.

3. 논문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한국근대문학과 연애론」, 『비교문학』 28, 한국비교문학회, 2002, 70~93쪽.

_____,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케이」,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회, 2004, 179~197쪽.

권보드래, 「열정의 公共性과 個人性-신소설에 나타난 '一夫一妻'와 '二妻'의 문제」, 『한국학보』 26, 2000, 108~128쪽.

김경수, 「염상섭 초기소설과 개성론과 연애론」,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2002, 223~243쪽.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회, 2001, 299~327쪽.

김미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김은실, 「소비에트사회에서의 여성해방실험-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Vol 43, No 2, 숙명여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2002, 169~211쪽.

방인근 편, 『朝鮮文士의 戀愛觀』, 雪華書館, 1926.

서지영, 「식민지 근대 유흥풍속과 섹슈얼리티-기생 · 카페여급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4.

_____ 「카페, 근대 유흥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2.

신영숙, 「일제하의 신여성의 연애, 결혼문제」, 『한국학보』 45, 1986, 182~217쪽.

염운옥, 「영국 우생학 운동과 모성주의-1907년에서 1930년대까지 '우생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84, 서양사학회, 2005, 89~115쪽.

이승신, 「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 <근대의 연애관>수용」, 『일본학보』 69, 한국일본학회, 2006, 371~381쪽.

이태숙, 「붉은 연애와 새로운 여성」, 『현대소설연구』 2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159~179쪽.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22집 4호, 한국여성학회, 2006, 47~84쪽.

정혜영, 「'연애'에의 동경과 좌절-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옅은 자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1, 현대소설학회, 2004, 107~126쪽.

_____, 「근대를 향한 시선- 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호, 한국여성문학회, 2000, 37~59쪽.

최혜실, 「개화기 신분제 붕괴와 남녀평등, 자유연애 결혼의 관련 양상」, 『현대소설연구』 9,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109~136쪽.

Abstract

Contract and Experiment, Collision and Contradiction : The Space of Modern Love in 1920-30s.

Seo, Ji-yeong

This paper intends to quest for the historical meaning of modern love in colonial Korea by looking into the reception and reconstruction of discourses on love from the Western Europe via Japan. First, I examine the multi-layered features of Ellen Key's book on love and that of Kuriyagawa Hakuson who succeeded to Ellen Key's concepts and thoughts and elevated her ideas on love into transcendental ideology, which became the ground of general idea on love at that time. Furthermore, I deal with the radical discourse on love by Aleksandra Kollontai presenting the model of proletarian love replaced by Ellen Key or Hakuson's love which was criticized as the bourgeois's love. Also, I illustrate the realization of modern love in actual life, which produced various refractive and contradictory results. Through the topography of discourses on love and the actual application in 1920-30s' Korea, I try to show how the ideal modern love combined with the prospect of women's liberation collided with the gender and class system and how the value of love were diminished or removed by being incorporated into the discourses on monogamy, nation, and state.

Key words : modern love, Ellen Key, Kuriyagawa Hakuson, Aleksandra Kollontai, gender, class, monogamy, fantasy, ideology

■ 본 논문은 4월 15일에 접수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